

先祖의 영광에서 후손의 自矜心を

《密陽朴氏先賢 史料集成》에 붙여

《朝鮮王朝實錄》은 太祖부터 哲宗에 이르기까지(1392~1863년)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 순에 따라 編年體로 기술한 역사책으로서, 어느 한사람이 한 시대에 특별한 史觀을 가지고 저술한 일반 史書와는 전혀 다른 역사기록입니다. 5백여년간 장구한 세월속에 수많은 史官에 의해 이루어진 歷史現場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史官의 史觀이 배제되는 생명이 없는 역사기록은 더욱 아닙니다. 때로는 칼날같은 史官의 直筆 앞에서는 날아가는 새들로 떨어뜨리던 당대의 勢道家도, 하늘같은 宰相의 위용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편년체 역사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민속·학술·지리 등 그 내용의 광범위함과 풍부함은 현존하는 최고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편찬과정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當代의 王이 승하하면 그 다음 왕대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비로소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게 되고 그것이 모여 《조선왕조실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 참고하는 기본 자료로는 전왕의 재위시 史官들이 기록한 <史草> <承政院日記> <議政府謄錄> <備邊司謄錄> <日省錄> 등이 망라되었기에 그 분량의 방대함은 원본만도 1,893冊에 다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朝鮮王朝實錄》의 가치는 객관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록관인 사관으로 임명된 관리들은 비록 품계는 낮았으나 어느 黨派에도 속하지 않은 淸華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信望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宮中에 들어가 왕과 신하들 간에 논의되는 국정의 전반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인물에 대한 비평 또는 잘잘못을 논평하는 등, 기밀 사무까지를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록들은 極秘文件으로 공공기관에 두지않고 각자 개인이 보관하였다가 실록편찬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관 이외에는 전제왕권의 절대권력으로서도 볼 수 없었던 기록들을 바탕으로 삼아 편찬하였기 때문에 《朝鮮王朝實錄》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5백여년의 장구한 時空을 넘나든 방대한 原史料 속에서 밀양박씨 登科人物들의 활약상을 뽑아낸다는 것은 마치 강물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관들의 서릿발같은 直筆 앞에서도 굴절됨이 없이 국정수행의 활약상을 보여준 140여 분에 달하는 선조들의 빛나는 足蹟을 如實하게 밝힐 수 있었으니 우리 門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땅에 하늘이 열리며 왕국을 건설, 백성을 편안케 했고 민족을 번영의 길로 안내했던 赫居世 聖祖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하루도 쉼없이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온 우리 문중의 일원이 있지 않았던가! 밀양박씨의 중시조인 密城大君 彦忱 할아버지를 비롯한 경명왕의 아들 8대군 등의 자손들이 지켜온 2천년의 전통은 말할것도 없이 감히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해 왔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의 위업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외람되게 책앞의 글에 대신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한얼보학연구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7년 7월

國會議員 · 신한국당 총재비서실장

六十四世孫

朴範亨